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한 가치창출로 시민 행복 증진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체육, 레저, 해피콜, 주차, 환경, 장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85만 청주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희망', '공간', '재능' 3대 나눔전략을 추진하며, 정기적인 성금 기부, 연탄 봉사활동, 스포츠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획득을 위해 ESG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윤리경영과 친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유운기 이사장을 만나 봤다.

(편집자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지역사회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삶의 터전
시민 편의 증진 위해 다분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나?
지역사회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관심을 두게 됐다. 이에,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희망나눔', '공간나눔', '재능나눔'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중점을 두고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획득을 위해,

기존의 ESG 경영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선을 목표로 전문기관 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활동을 준비했다. 또한, 윤리경영 방면에서 부패방지 경영인증시스템을 획득하여 청렴 윤리경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렴 동아리 활동, 청렴 교육 시행 등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과 사회공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다각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는 헌혈, 성금 기부, 농촌 일손 돕기,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업종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사업을 통해 환경 경영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 복지, 봉사, 공공시설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 행복의 날' 운영 등 시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복의 날 운영 '컬링 재능 기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나눔미봉사단 후원 물품 전달식.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사회공헌, 시설관리, 업무교류 등 4개 분야에서 총 78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ESG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하며, "깨끗한 청주, 시민이(도) 애쓰(지)고(G)"라는 슬로건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1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선도단과 268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외부뿐만이 아닌 내부 고객들에게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관간의 '소통과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외부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로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레벨을 높이고 3대 '나눔' 전략(희망나눔, 공간나눔, 재능나눔)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든 수혜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올해 하반기엔 내부 참여자에게도 여론 조사를 통해 새로운 범위로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청년의 경제 참여 활성화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 '청년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충북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개소

도내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에서 교육과 상담 함께해요"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성안길 일원(상당로 55번길 21)에 '쉬었음' 청년 발상을 예방하고, 청년의 경제 참여 활성화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 '청년카페' 개소식을 개최했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말한다.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고용노동부 이현욱 청년고용정책관, 이범석 청주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카페는 3층에 교육실, 상담실, 카페, 휴게실을 운영하고, 옥상에는 청주시내 전경을 즐기며 공연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카페 이용을 원하는 도내 청년은 운

영시간인 10시부터 20시(평일, 주함 포함)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카페에서 참여할 수 있다. 청년카페에서는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충북 특화형 프로그램, 교육 등을 운영하고, 전문 심리상담가 4명이 상주하며,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를 진행한다. 청년카페의 운영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맡는다. 충북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4억 60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청년카페' 운영 외에도 '직장 적응'을 지원하며 채용 후 1년 이내의 신입 청년·기업 관리자,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적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충북도,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충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 여름과 겨울철을 비용 걱정 없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기한도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도시

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원하는 에너지원(대용·LPG·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대상자가 선택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59, 12, 31, 이전 출생)이거나 영유아(17, 1, 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다.

부담되는 목돈수술비

의료비후불제와 함께하세요!

- 신청자격** 도내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대상질환** 임플란트, 슬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 대출한도** 1인 50만원~300만원(이자는 도에서 지원)
- 상환조건**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문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220-3192~3194



의료비후불제QR코드



충주시, 대중교통 취약지 콜버스 운행

11월에 13개 읍면으로 확대... 요금은 마을버스와 동일

충주시는 지난 3일부터 콜버스 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충주콜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 역에 사는 주민이 전화나 휴대전 화 앱으로 예약하면 버스가 승객 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다. 대상은 대소원면 9개 마을, 산 척면 5개 마을 등 모두 14개 마을 이다. 오는 8월에 4개 면을 추가 하고, 11월에는 13개 읍면으로 확 대한다. 일당 15인승 버스 2대를 승객

이 편하게 타고 내리기 쉽게 11 인승으로 개조해 운행하며, 요금 은 성인 기준 카드 900원, 현금 1000원 등 마을버스 요금과 동일 하다. 강용식 교통정책과장은 “충주 콜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 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면서 “읍면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콜버스 운행 시작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적 용한다. 노선 개편안은 기존 100



충주콜버스

개 노선에서 71개 노선으로 감축 하고, 1일 운행회수를 기존 531

회에서 567회로 36회 증가한 것 이 주요 내용이다.



음성군은 지난달 31일 음성읍 전통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신축된 설성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음성군, 설성 어울림센터 준공식 개최

주민·청소년위한 다목적 공간
음성군은 지난달 31일 음성을 전통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 환으로 신축된 설성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음성읍 문화1길 10-1에 조성 된 어울림센터는 유휴지로 장기 간 방치돼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부지를 음성시장 활성화와 청소

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변 모했다. 설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을 통해 2022년 11월에 공사에

착공했으며, 연면적 1391.14㎡ 부지에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 지의 규모로 지난 4월 준공됐다. 어울림센터는 기존구조물 해 체와 실시설계, 토목건축 공사 등 각종 설비공사 비용과 인허가 비 용을 포함해 사업비 86억2000만 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아동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와 음성시장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품바방 제작소, 회 의 등을 위한 계단형 다목적 공간 으로 조성됐다. 2층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와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가, 3층은 지역주민의 교육 과 회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 다. 조병욱 군수는 “청소년들과 어 린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군, 인구 지난해 대비 487명 증가

출생아수 도내 4위 → 3위
진천군 인구가 17년 연속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 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의 주민 등록인구는 8만6741명으로 지난 해 말 8만6254명보다 487명이 증가했다. 연 단위로 보면 군의 인구 증가 는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 지 17년 연속 늘고 있으며 그 증 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군은 8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 을 달성하는 등 우량 기업을 지속 해서 유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 꾸준한 인구 증가를 견인해 왔다. 다만 공동주택 공급 일정에 차

질이 생기면서 지난해에는 인구 증가세가 더뎠다. 하지만 올해 충북혁신도시(덕 산읍) 내 1000세대, 이월면 약 380세대 등 신규 아파트 두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되살아났다. 현재 두 단지 입주율이 각각 83%, 42%를 기록하는 만큼 증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 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30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준공이 예정돼 있 어 지역민 숫자는 안정적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군의 인구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건강한 성장이 뒷받 침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출생아 수 변화다. 지난달 말 기준 진천군 출생아 수는 213

명으로 충주시(1971명), 충주시 (365명)에 이어 도내 3위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위에서 한 단계 오른 기록이며, 지속가 능한 인구 성장 정책으로 펼친 인 신·출산부, 영유아 등 모자보건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

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 비 지원 등 기존 사업 대상을 확대 해 운영 중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현재 128건을 기록,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 군민 무료 버스 사업을 조속 히 시행하고, 얼마 전 문을 연 복 합혁신센터를 비롯해 문화예술 관, 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 센터, 충북혁신도시 꿈 자람터 등 주민 편의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충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청주시,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 지원

도어가드 보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1년간 무료 지원

청주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 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85 명에게 ‘안심홈세트’를 1년간 무 료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트는 도어가드 보안장치 (OCTV), 도어락 지문 방지 필름, 휴대용 비상벨로 이뤄져 있다.

시는 2022년 청주흥덕경찰 서, SK설터스와 여성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흥덕서는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 가구를 시에 추천하고 집입 경보 등 위 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며, 보안

전문기업인 SK설터스는 24시 간 긴급출동 태세를 갖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청 홈페이지(www. cheongju. go.kr) ‘공지사항’ 코너에서 신 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여 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 로314)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jss37560@korea.kr)로 제출하 면 된다.

단양군, 마음으로 잇는 마을만들기 ‘힘찬 출발’

‘2024년 마음이음 사업’ 올해 첫 시행



단양군이 올해부터 마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 해 마음이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양군이 올해부터 마을 스스 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음이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8 일 밝혔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 들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 업은 귀농귀촌인, 다문화 이주 민 등 농촌 구성원이 다양해지 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이 저하

되는 것을 주민 스스로 극복하 기 위한 것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6개 마을 (단양읍 마조리, 대강면 직터리, 가곡면 여의곡2리, 영춘면 용진 리, 사지원2리, 적성면 하2리)을 선정해 마을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추후 이들 마을을 평가해 1등 마을에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

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은 지난달 각 마을을 방문해 주민 교육을 시행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평생학습 센터에서는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리더 30여명과 함께 참여와 화합을 위한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마을 리더들은 각 마을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 해결 요소, 대응 책을 논의하고 마을별 경관 가 꾸기 사업, 문화 프로그램, 주민 복지사업 등의 실행계획을 학습 했다. 김문근 군수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성 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에서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각 마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건강 하고 살기 좋은 단양의 다짐돌 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독거노인 AI 돌봄 로봇 지원사업 추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돌봄 로봇 ‘클로이’ 200대 보급

제천시와 충북과학기술혁신 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 원)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을 통해 제천 시 거주 취약계층 독거노인에게 AI 돌봄 로봇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로봇산 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이 시행하 는 사업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 및 돌봄 인력의 업무경감 등 사회문 제 해결과 질 높은 간병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충북의 고령인구(만 65세 이 상) 비율은 20.8%로 고령화 속 도가 위험 수준이고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2위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제천시는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31.2%(전체 1인 가구 대비)로 충북도 평균을 상회하 며 계속 상승 중이다. 이에 도와 각 지자체는 2021 년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 봄 로봇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 행하여 현재 청주,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충주 등에 1230대를 보급 완료했고, 내년까지 500대 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AI 돌봄 로봇 ‘클로이’는 긴급모 니터링, 치매인지, 퀴즈, 알람,



AI 돌봄 로봇 ‘클로이’.

원격대화 및 말벗 기능이 탑재 돼 있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게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 사,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즉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나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공급식 업무협약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공급망 확대

옥천군은 지난 3일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김종효)과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원장 이따라 김군은 옥천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며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공공급식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주민 먹거리 복지 향상과 농가 소득 보전, 식재 등 공급 체계의 공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효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옥천군은 지난 3일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협약식을 진행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군수는 "옥천성모병원에 이어 옥천군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도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진료비·약제비 월 최대 3만원 지원

영동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해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치매 조기 치료와 증상 악화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해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

(상)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치료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으로 월 최대 3만 원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자체만 사할 수 있는 영동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740-5947)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스마트기기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총 사업비 5000만원, 도내 증평군 유일

증평군이 울머름 폭염에 대비해 스마트리기를 활용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지	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충북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다. 군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폭염 취약계층에게 차용형 스마트리기를 보급한다. 차용형 스마트리기를 활용해 심박수·피부온도 등 폭염 취
--	--

약계층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스마트기기는 실시간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착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위험 상황임을 알린다.

또 폭염으로 인한 쓰러짐 또는 급격한 심박수 변화 등으로 긴급상황이 감지될 경우, 사전 연결된 보호자에게 즉시 위치를

증평군 '행복 아동 돌봄정책' 눈길

실질적 수요 맞춤형 행복돌봄사업 운영

증평군이 충북도교육청과 행복나눔 아동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윤건영 교육감이 돌봄지역화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후면시아 1단지 아파트)를 방문했다. 현재 운영 중인 증평형 행복돌봄나눔터는 8개소로, 그중 초롱이를 포함한

4개소가 주말에도 운영되며 맛별이 부모들의 양육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걱정 없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수요 맞춤형 행복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은 이러한 증평군의 아동돌봄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2층 행복돌봄타운터의 아이들이 돌보며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AI 로봇을 활용한 교육 추진과 아동돌봄 등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괴산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본격 실시

75세 이상,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하도록 맞춤형 지원 제공

괴산군은 고령노인 및 거동불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괴산군노인 복지관(관장 황지연)과 함께 노년층 노인 연립별 맞춤 재가지원 서비스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고령이 취약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발굴해 지역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일

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어르
신들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
게 이·미용 동행 및 이동지원, 장
보기, 관공서 업무대행, 은행(예
금) 및 우체국(택배) 업무대행 등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뚱다는 방
침이다.

백내장으로 인한 시각장애로 일
상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
하던 한 어르신은 "자녀들은 모두
원거리에서 거주하고 평일에 예금
인출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5월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
록 대상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다.

과산형 어르신들봄 특화사업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들봄소통창구 또는 과산군노인복지관(☎043-834-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은 지난 3일 '장연면 오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느티나무공부방 광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괴산군, 문화·복지 및 교류공간 구축

‘장연면 오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괴산군은 지난 3일 '장염면 오가기조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느티나무공부방 광장에서 공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송인현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장염면 오가기조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면 소재지 특성에 맞게 문화·복지 및 교류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군비 12억원)을 투입해 2020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됐다.

기조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복지회관 리모델링(면적 159㎡), 느티나무 공방바조 조성(354㎡), 다목적광장 조성(6672㎡), 공동 주차장

조성(주차대수 28대), 행복나눔동지 조성(공급고속 2호), 가로경관 개선사업(가로등 9개, 가로수 22주)을 추진했다.

또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장영소공원과 느티나무 공원을 정비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교육도 진행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기초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권익 증진

최근 보은군에서는 ‘청년, 젊음’, ‘변화’와 같은 단어가 고령화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청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청년정책의 로드맵인 ‘2023~2027 보은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청년의 꿈과 희망

이 살아있는 도시형 농촌 보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은 청년 새來(올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도시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의 회와의 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은형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자립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들의 문화적 즐거움을 위한 축제인 '놀이 BOEUN(본) 청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들줄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복지부, 전국 17개 시·도 순차적 시작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6월 중으로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지원 인원	340명	500명	1,500명
주요 내용	■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 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제공 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09:00 ■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 (주간) 10:00~17:00	■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유형별 서비스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헌 장애인정책

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내달부터 4.5% 인상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하한액 37만원→39만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

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동발달·안전, 가족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6.57점)보다 향상되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 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세부터 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수(5.44→8.62명, 9세부터 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됐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험 경험(27.7→10.0%, 38.6→30.6%)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12.2→4.5%, 0세부터 5세)도 감소하는 등 아동의 안전도 나아졌으며, 아동의 물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박탈점수도 1.15점으로 2018년(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탈점수란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 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를 말한다.

다만,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8.4→14.3%, 9세부터 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스트레스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세부터 17세)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군·구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포스터, 리플렛,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



서비스 제공기관 부착용 스티커.

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규모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첫 실시

전국 9세부터 24세, 내달 31일까지 온라인 웹조사 진행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협업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실태조사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면 결과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를 발송(휴대폰이 없는 경우 개인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여 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문조사 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등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운영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만9000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 쉼터(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로 지정(약 4만6000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은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단가를 월 16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월 1만원 인상(6.1%)하여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엔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대해서도 등록 경로당에 준하여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폭염 특보 단계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모금회 “더운 여름, 희망을 나뉘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달 15일까지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캠페인 김영환 도지사 1호 기부... “나눔의 힘 보여주길”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총 45일간 기후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신(新)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연중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취약계층 기후위기 에너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일상에서 쉽고 꾸준히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 착한가정(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기부), 착한가게(개인사업자가 3만원 이상을 매월 정기기부), 착한일터(직장인이 급여에서 약정한 금액을 정기기부), 착한햇(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연 2만원 이상 매월 정기기부)을 통해 사랑의열매 브랜드 모금의 ‘착’을 반복·강조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부에 착!

착!착!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착!착!착! 희망을 지원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캠페인명에 담았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키워드는 돌봄·안전·교육이다. 희망여름 착!착!착! 연중모금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고립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지원,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위생안전 취약계층 지원, 급변하는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하는 나눔의 힘을 보

여주시는 충북 도민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여름에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금모금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성 회장은 “소중한 이웃들이 희망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성금접수는 농협 313-01-148060(충북모금회)로 받으며, 기부자는 충북모금회 ☎043-238-9100로 연락하여 기부금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심리상담센터 ‘꽃’ 개소

개인·집단상담, 심리평가 등 서비스 제공



가톨릭꽃동네대학교가 부설 심리상담센터 ‘꽃’ 개소식을 개최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총장 이종서)가 부설 심리상담센터 ‘꽃’을 개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심리상담센터 ‘꽃’은 가톨릭이념과 꽃동네 정신을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심리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별칭인 ‘꽃’은 심리상담을 통해 존재가 치유되고, 꽃처럼 생기기

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리상담센터는 공신력 있는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도 협력하여 높은 질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수련생들에게 슈퍼비전, 수련패키지, 세미나 등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 “우리는 자원순환지킴이”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
생필품 등 취약층 지원

청주흥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이 2024년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지킴이(폐건전지 수거)’를 운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자원순환지킴이’는 31명의 참여자가 폐건전지 배출이 어려운 곳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비치하고 수거하며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이 2024년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지킴이(폐건전지 수거)’를 운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월부터 4월까지 수거된 폐건전지 2만5000여개(850kg)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으며, 수거된 폐건전지를 전달하여 제

공방은 종량제 봉투, 화장지 등 생필품은 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

‘자원순환지킴이’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폐건전지를 배출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했었는데 일자리 참여를 통해 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에 일조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미정 관장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실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은 현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총 30개 사업단에 1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주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청주시지부 창립총회

행복한 청주 조성...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출범

청주시지부 창립총회 열어 “통합돌봄 실현 중심 역할”

청주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단법인 충청북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청주시지부(회장 김애자)가 출범했다.

청주시지부는 지난 7일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총회는 개회선언, 경과보고, 안건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초대 김애자 회장(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단순히 보호의 개념을 넘어 이용 장애인들이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충청북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청주시지부는 회원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용인과 이용인 가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지원 및 정보공유의 편의를 도모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 및 주간이용시설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주시, 시각장애인 화합·소통의 장 마련

복지대회 행사 250여명 참석

청주시는 지난 14일 충청북도 공동리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 장애인가족,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청주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청주시지회(회장 한진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시각장애인복지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 수여, 장애인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각장애인 체험부스를 설치해 비시각장애인이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상호교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도록 돌봄서비스와 재활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청주시지회는 점자교실, 점자시정소식지 발간사업, 시각장애인통합재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팔래터 활성화 협약

장애인복지기관 등 6개 단체 노인 세탁물 수거·배달 도와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김남순)가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팔래터 사업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자원봉사 팔래터는 지역 내 노인 및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 세탁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5개 자원봉사단체가 돌아가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유관기관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찬연), 증평군노인복지관(관장 정미경), 증평군새마을회(회장 김은영), 정다운봉사회(회장 조관주), 증평군장기요양기관협의회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팔래터 사업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회장 신원숙), 삼보사회복지관(관장 정태선)이다.

이들 기관은 세탁물 수거, 배달 등의 역할을 맡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팔래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남순 센터장은 “팔래터 봉사

를 통해 이불 빨래를 자주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팔래터사업에 참여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2024. 제1차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
고령노인 돌봄을 위한 중장년의 부양부담 현실
[일시] 2024. 6. 5(수) 14:00 [장소] 청주시아동복지관 프로그램실 [주최·주관] SSN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5일 청주시아동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고령노인 돌봄을 위한 중장년의 부양 부담 현실을 주제로 '제 1차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를 개최했다.

가족 돌봄 지원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절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유응모



〈시소와그네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장〉
유옥현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장〉
이순희



〈충청북도공동리체육관장〉
안종태



〈청주가경노인복지관장〉
김현숙

2024년 제1차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 개최 가정 돌봄 한계 문제 해결,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형)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인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순희)는 지난 5일 고령노인 돌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소는 청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전문 자문 제공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네트워크 강화로 특히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단체, 주민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이순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4명의 연구위원(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장 유옥현, 청주가경노인복지관장 김현숙, 충청북도공동리체육관장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유응모)과 함께 고령노인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실태와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깊이 다루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노인의 가정 돌봄 실태 ▲가정 돌봄의 부담과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정책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고령노인의 가정돌봄 실태

유옥현 연구위원- “중장년층의 돌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한 비율이 20.3%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55.4%에 달한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도 26.8%로 결국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연구위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23년 기준으로 85세 이상 노인이 102만명에 달한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2.2%가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중 74.5%가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고,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약 10.7% 중 58.9%가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돌봄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정 돌봄의 부담과 문제점

이순희 연구소장- “대부분 많은 노인들이 시설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실태를 알 수 있지만 가정 내 돌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종태 연구위원- “가정 돌봄의 한계와 시설 문제를 고려할 때, 노인 돌봄을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가정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더불어 장애노인의 돌봄에 대한 문제도 다뤄지길 바란다”

유옥현·김현숙 연구위원- “중장년층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등급 미달 및 자발적인 취소로 소득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

김현숙 연구위원- “돌봄의 스트레스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노인돌봄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상담창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와 소득에 따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안종태 연구위원- “노인 돌봄 정책을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가정 돌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노인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유응모 연구위원- “방문 요양제도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주부양 가족이 직장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예로 요양용품 활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주요 결론 및 제언

가정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은 비율의 증가와 가정 구성원의 부담이 크다는 점으로 돌봄 역할을 맡은 가정 내 구성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서비스 사각지대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첫째,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정책 교육, 정보 제공과 돌봄 서비스 확대와 기준 완화, 가족 돌봄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는 노인 돌봄 정책의 개선과 지역 사회로의 돌봄 전환, 그리고 돌봄 부담의 공정한 분배와 지원 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방향이다.

이순희 연구소장은 “이번 좌담회가 가정 돌봄의 부담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좌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청주대점 / 충북대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복지광장



이영민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한빛복지관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거시적으로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거쳐 ‘의료, 요양 통합돌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 본사업 대비 90% 이상의 완성도를 보이고, 이 모델은 전국적으로도 수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맞추어 충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시범사업을 위해 공모사업 진행, 음성군과 괴산군은 각기 다른 형태의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며, 증평군은 올해 5월부터 마을거점돌봄을 시범사업으로 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행 중이다.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통합돌봄’이나,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커뮤니티케어’라는 선진국형 모델보다는 다소 후퇴한 모양새를 보이고, 각 대상의 분절된 통합돌봄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어쨌든 이용자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이용자 중심의 접근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문제의 해결과 시설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있다.

최근 다양한 포럼에서 본 사업의 진행이 지자체의 공공인력 충원 개선과 투여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위한 공무원 추가 증원과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조세 지원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맞춤형 복지 정책은 행안부의 주도로 공무원과 실무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 의료, 통합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다는 측면,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 이로 인한 행안부 및 기재부의 협조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녀들의 부양으로부터 점차 멀어져만 가는 노인단독세대는 현재의 시범사업에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노-노’ 돌봄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건강할 때 ‘예방적’ 측면의 통합돌봄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시설입소나 병원 입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던 이전 상황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의 선택권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돌봄의 대상이 생기면 마을 공동체가 같이 돌봄에 참여하는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통합’이라는 취지에 비해 기존 복지제도나 서비스와의 융합적 측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폐지하고, 현재 관점의 통합돌봄에만 치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전에 추진하던 복지서비스나 기관의 지역사회 복지 수행 능력과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그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며 새로운 제도권으로 흡수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의 한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복지서비스나 기관을 삭제하고 그 예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메꾸려고 한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는 비용이 드는 사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시스템적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이

터와 노하우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행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다시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안타깝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절에는 요양시설 부족 문제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되거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거사서비스’의 폐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축소 및 폐업 유도 등의 사례가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단순히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고 있다.

‘돌봄’의 개념은 단순한 일상적인 돌보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원과 복지서비스, 복지기관의 역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노인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 하는 당연한 욕구가 있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제도적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구성되지만, 현재 유지되는 복지기관과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제도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건강칼럼

퇴행성 관절염의 이해와 관리



이종선

청주의료원 1정형외과장

인간에게 있어 무릎의 관절염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환이다. 선사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질환으로 과거 조선의 4대 국왕인 세종대왕도 이 관절염으로 고생한 기록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어떤 이들은 인류가 발전하고 점차 두발로 걷게 되면서 손의 자유를 얻었지만 무릎의 관절염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찾기도 하며, 줄기세포치료, 프롤로 주사 치료, 연골 주사 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접해보고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약물과 주사로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많이 진행되고 나면 약물이나 주사로 해결이 되지 않고 점차 걷기 어려워지게 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증가하여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심한 관절염을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되게 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으며, 결국 관절염이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고위 경골 절골술(다리 교정수술), 인공 관절 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나이가 젊고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줄기세포나 고위 경골 절골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인공 관절 수술을 포함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아주 심한 관절염이나 고위 경골 절골술이 실패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

고위 경골 절골술이나 인공 관절 수술은 O자형 다리를 반듯하게 펴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할 때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한다.

비교적 힘들어하지 않고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에 맞게 조금 조절해서 운동한다면 걱정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생기고 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직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해보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방법,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와 같이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체중 관리도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이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켜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관절의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항염증 성분이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경제적 부담없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건강한 무릎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이신원

봉날수간호센터 사회복지사

어린시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움을 받는 법을 알아야 도움을 주는 법도 알 수 있다”는 교훈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보육 시설에 식사지원 봉사를 나가며 어린 나이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를 어깨 너머로 보았다.

처음에는 왜 쉬는 날에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번 보육시설 관계자분께서 “아이들은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아버님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함께 놀아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 꿈을 정할 수 있었다. 타인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여 여러 분야의 복지현장에서 봉사활동과 실습을 하며 현장 업무의 기본을 배운 후,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노인 분야에서의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요양원에 취업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을 하며 시설 관리 및 사무 업무무를 맡았고,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밤에 발생한 특이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요양원이라는 시설 특성상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으며, 때로는 임종 단계에서 함께하기도 했다.

내가 선택한 길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힘들었다. 또한 점점 개인적이고 무리한 보호자의 요구에 대한 딜레마를 겪는 일도 많았으며 결국 반복되는 많은 사무 업무와 시설 관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지쳐 10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결정했다.

1년도 채 버티지 못해 퇴사한 것이 현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다른 이들이 겪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기도, 심지어 사회복지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할지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을 떠나기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깨닫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보내준 감사의 말과 표정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 다시 한 번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마음먹게 됐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고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 일을 맡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일주일간의 휴식을 가진 후 다시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 발을 디뎌 현재 봉납주 간보호센터에 재직중이다.

과거 요양원에서의 경험 덕분에 처음 보는 어르신들과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이 혼자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에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여 매일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즐기며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자를 선택한 것이 파하거나 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장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과 예비 사회복지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당신들이 있음으로써 누군가는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12세인 제 조카가 이웃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남자는 현재 성범죄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인 조카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법률 지원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당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소 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보고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도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실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구속전 피의자심문 및 증거 보전 절차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수사절차,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관련 소송의 법률적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형사절차 이외의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사동정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조덕행 / 6월 17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계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굿네이버스&대한국토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이재민 주거피해 복구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재난·재해 피해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총 20가정
 - 재난·재해 피해(홍수해, 산불, 폭우 등), 인재로 인한 화재 피해 등
 - 3개년도 전(2022년~2024년) 발생 피해까지 신청 가능
- 사업지역: 전국
- 사업기간: 2024년 6월 ~ 2024년 12월 (총 6개월)
- 지원내용: 가정 당 최대 2,500만원 지원

- 재난·재해 복구 및 예방: 폐기물 처리 및 청소, 방수/차수막 설치, 단열 개보수 등 (지원 금액의 70% 이상 편성)
- 일반 개보수: 화장실 및 주방환경 개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등(지원 금액의 20% 미만 편성)
- 물품지원: 필요 물품 및 가구 지원 (지원 금액의 10% 미만 편성)
- 신청기간: ~2024.7.19.(금)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ministry@gnk.or.kr)
- 참고: www.goodneighbors.kr

[영산조용기자선재단, 2024년 복지(자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 공모분야: 자유주제 (국내사업에 한함)
- 참가자격: 복지향상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개인, 2인 이상의 팀 또는 단체), 중복지원 가능
- 접수기간: ~2024.8.31.(토)
- 접수방법: 서류 구비 및 이메일 신청
- 시상규모: 최우수상-1팀(150만원), 우수상-1팀(90만원), 장려상-2팀(30만원)
- 참고: yonggichio.org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헬렌켈러룸' 입소자 모집]

- 모집대상 및 입소 조건: 동반인과 입소가 가능한 전국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시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 모집기간: 상시
- 시설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휘경동 주공아파트 1차)
- 이용료: 생활비 실비 부담
- 입소기간: 14일
- 입소 우선순위: 1순위-지방 거주 시청각장애인, 2순위-지방 거주 시청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 3순위-수도권 거주 시청각장애인
- 참고: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SBS와 함께하는 2024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국내위기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포함 2인 이상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정
- 지원분야: 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생계비, 거주지 이전비 등
- 지원금액: 1가정 당 1,500만원(방송일로부터 1개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선정결과: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개별 연락 예정
- 참고: miral.org

[밀알복지재단, 신장이식수술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내 저소득층 신장장애인
- 신청기간: ~2024.12.13.(금)까지
- 지원내용: 신장이식수술비(잔액 발생 시 공여자 수술비로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외 저소득층: 400만원 한도
- 지원시기 및 방법: 수술비 최종정산 후 1개월 이내 치료병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참고: www.miral.org

[희망브리지, 2024년 방송 온라인 사례 추천]

- 지원대상: 의료/주거/재난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방송 및 온라인 모금콘텐츠 출연에 동의한 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18세 이상인 경우, 협의 가능)
- 사업기간(1분기): 2024년 1월~3월(1차 지원)
- 지원내용: 의료/주거/교육/생활비 등 최소 1000만원~1500만원
- 지원방법: 방송출연 및 온라인·오프라인 모금 종료 후, 희망브리지 내부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지원
- 추천기간: 2024년 1월~12월 (상시접수)
- 추천방법: 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 참고: hopebridge.or.kr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상향편드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만 18세 이

하)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 지원내용: 의료비 500만원 지원(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지원절차: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개인 신청 불가)
- 캣거루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 (만19세 이상)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성인)
- 지원내용: 의료비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참고: www.ktngwelfare.org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아동 학습·문화예술 지원]

- 행복가정학습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 지원내용: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1회)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지원절차: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 문화예술활동비지원
- 지원대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참여인원 : 아동 3~7명 (담당자 제외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참고: www.ktngwelfare.org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4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도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 방법: 전화 접수(T. 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자원 봉사자 모집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관리센터: 음성꽃동네노숙인재활원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879-8552

▶어르신 식사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234-5479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855-9393

▶산책 걷기 동행
관리센터: 괴산군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834-3412

▶프로그램 보조·시설환경 미화
관리센터: 더 공생 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908-0501

▶장애인 활동보조
관리센터: 충북증증장애인복지협회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222-8890

▶보드게임 봉사단
관리센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7.1 ~ 7.31
전화번호: 043-255-2144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한빛봉사단, 배식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한빛봉사단(단장 연금순)은 지난 4일 음성군에 위치한 한빛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어르신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정은영 단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을 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어르신들의 소중한 한끼 식사에 조금이나마 손을 보탬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봉사단은 2024년 3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달 정기적으로(첫째주 화요일, 셋째주 목요일)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단 자체 회의로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하였다면?

경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복/지/만/평

중립

이창신 www.bokmani.com

